

日本遠征을 둘러싼 高麗 忠烈王의 정치적 意圖

김 보광 金甫桃 (嘉泉大学)

發表要旨

몽골제국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은, 몽골이 고려에도 진출하면서 큰 영향을 주었다. 몽골이 고려에 영향을 끼친 기간은 크게 ‘抗蒙’이라 하던 전쟁시기와 ‘干涉期’라고 하는 전쟁 이후의 시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원정’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몽골이 고려에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하는 招諭를 요구하였다가 초유가 실패한 이후에 몽골이 고려를 데리고 직접 일본 정벌을 추진한 정복사업이었다.

과거, ‘일본원정’이라는 사건은 몽골이 주도하고 고려는 여기에 동원된 전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국왕(元宗 및 忠烈王)은 1차 원정과 2차 원정 사이에 소극적 회피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담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당시 고려왕이던 忠烈王이 태도 변화를 일으킨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곧 태도 변화에 담긴 忠烈王의 의도,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13세기 후반 忠烈王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의 특징 중 하나를 들자면, 고려를 바라보는 입장의 변화이다. 곧 고려가 일방적으로 몽골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 시기 몽골의 영향력이 강하게 투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 또는 국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고려-몽골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忠烈王의 지위가 상징적이다. 그는 고려의 국왕이면서, 몽골과 왕실간 혼인을 한 최초의 왕이고, 뒤에는 정동행성이라는 몽골의 지방 최고 단위의 장관인 승상이 되었다. 그런데 몽골의 부마라는 지위, 또는 몽골과의 왕실간 혼인은 고려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으며, 征東行省은 몽골이 설치하였음에도 忠烈王은 행성 내에서 자신의 역할도 요청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려왕=忠烈王은 몽골제국의 위세를 빌려 왕권을 확립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몽골의 駙馬, 丞相이라는 요소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1170년부터 100년간 지속된 무신정권 시기에 고려의 왕권은 지속해서 약화되어 왔다. 1270년에 武臣政權이 무너지고 王政이 復古되었지만, 이제는 몽골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고려의 여러 가지 기존 체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장 忠烈王과 쿠빌라이의 딸 쿠틀룩케르미쉬(齊國大長公主)와의 혼인처럼 고려와 몽골 사이에 왕실혼인이 성사되었고, 中書門下省과 6部 중심의 官制가 僉議府와 4司 체제로 몽골의 요구에 따라 格下, 개편되었다. 그리고 다루가치와 같은 몽골의 관인, 군대가 고려에 상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고려의 왕권을 안정,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재설정하도록 강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은 사신 趙良弼을 일본으로 보내 항복하도록 권유하였고, 외교적 접촉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쟁을 준비하였다. 사신의 파견이나 2차에 걸친 전쟁에 고려는 모두 몽골에 협조하였다. 1차 遠征 당시, 고려는 1274년에 고려는 30,500 명을 징발하여 900 척을 배를 건조하였고, 고려군

6 천명, 水夫 6,700 명이 동원되었고, 1281 년의 2 차 원정 당시에는 戰艦 900 척, 군사 1 만명, 水夫 17,000 명 등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人的, 物的 부담에 고려는 심각한 곤란을 겪었고, 부담의 막중함을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 특히 忠烈王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면,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려측의 호소와는 다른 맥락이 보인다. 忠烈王은 遠征 준비의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일본 원정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호응하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1 차 원정 당시 몽골군과 고려군 지휘부의 혼란상을 敗戰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2 차 원정에서는 지휘부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고려측 장수들을 萬戶職에 임명, 金牌 賜與 등 몽골식 관제에 따른 지휘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몽골은 忠烈王의 요청을 허락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高麗王, 곧 忠烈王을 征東行省丞相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고려왕이 行省의 丞相을 兼任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忠烈王이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일본 원정 사업에 대한 몽골의 강력한 의지를 왕권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忠烈王은 몽골 풍습이나 제도에 따른 부분을 강조하였다. 곧 몽골지배층의 一員인 ‘駙馬’의 의무를 강조하여, 몽골이 자신에게 지휘권 등을 인정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둘째, 첫째의 연장선에서, 몽골에 지휘권을 요청하고, 이를 고려 장군들에게 적용시키게 되면서 고려군은 몽골군과의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고려군을 몽골의 군사제도인 ‘萬戶’로 자신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휘권에 대한 忠烈王의 요청을 몽골이 수용하고 거기에 더해 忠烈王을 行省丞相으로 임명함으로써, 몽골은 고려왕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결국 일본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忠烈王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의도는 忠烈王이 丞相이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보광 略曆

主要 經歷 :

2012.05.-2014.02. 高麗大 韓國史研究所 研究教授
2014.03.-2016.02. 高麗大 BK21PLUS 韓國史事業團 研究教授
2017.03.-現在 嘉泉(가치온, Gachon)大學校 Liberal Arts College 助教授

主要 研究分野 :

고려의 정치제도, 권력구조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2014)

고려전기 魚袋의 개념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2015)

고려.몽골 관계의 전개와 다루가치의 置廢過程(2015)

고려의 對蒙 대응 논리와 ‘大國이미지’-1231, 1232 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2015)

고려전기 公服制의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2016)

고려 내 다루가치의 존재 양상과 영향-다루가치를 통한 몽골 지배방식의 경험-(2016)